

나주시 최대 현안 엇갈린 명암

혁신도시 인구 늘고 젊어지며 활력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법찾기 고심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최대 현안과 관련, 명암(明暗)이 엇갈리고 있다.

사라질 위험에 놓일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5000명이 넘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활력을 찾는 분위기다.

반면, 지난해부터 갈등을 불러온 열병합발전소는 법적 소송과 전남도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면서 새해에도 해결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늘고...젊어지고=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나주 인구는 11만110명으로 전년도(10만4376명)보다 5734명이 늘었다.

혁신도시 활성화로 인한 인구 증가가 한몫을 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밀집한 빛가람동 인구가 2만8266명으로 집계돼 전년도(2만1405명)에 견줘 6861명이나 증가했다. 혁신도시가 나주 전체 인구 증가를 이끄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의 경우 혁신도시 활성화로 인근 남평 인구도 2016년 말(7855명)보다 979명 증가해 지난해 말 8834명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공기관 직원들 대부분이 젊은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주 노인 인구 비율이 낮아진 점도 눈에 띈다.

나주의 지난해 말 기준 노인 인구는 2

노인 인구 비율 낮아지고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탄력

열병합발전소 문제 장기화

광역자원화시설도 가동 차질

만4178명으로 전년도(2만3489명)에 비해 689명 줄었다. 노인 인구 비율도 전년도 22.5%에서 지난해 말 22.0%로 감소했다. 젊은층의 이탈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실태를 고려하면 사뭇 다른 결과다.

전남 22개 시·군 중 노인 인구 비율 감소는 나주가 유일했다.

나주시도 반기는 분위기다.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주변지역으로 생기가 확산,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 서다. 광주·전남 에너지 동력산업의 중심이 될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시즌 2’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해결 늦어지고...장기화 우려=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열병합발전소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문제는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성능미달, 가동중단, 경찰 수사에 이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 상태다.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지역민들과 한국지력

난방공사 간 갈등으로 정상적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29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난방공사측이 제기한 ‘고형연료 사용 신고수리 등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고형연료 제품 사용신고 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100여건에 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이 이월된 점 등으로 제때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고려하면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도 195억을 들여 건립했지만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애초 광역자원화시설의 고형연료를 열병합발전소에 원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자원화시설 장비 성능 미달 논란과 발전소 운영 중단 등이 맞물리면서 가동을 멈추고 있다.

광역자원화시설이 중단된 기간 만큼이 일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처리는 매립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혁신도시 주민들 스마트폰으로 수돗물 수질 확인 가능

첨단 물관리 시스템

빠르면 하반기 실시

혁신도시 주민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수돗물 수질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탁수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던 혁신도시 수질 민원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빛가람 혁신도시 스마트 물 관리’ 협약에 따라 준비중인 첨단 물관리시스템이 이르면 올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앞서 수자원공사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스마트폰 앱이나 전광판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나주시는 첨단 물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면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수질전광판. 시는 주민 요구 시 수질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등 음용 수돗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나주시 제공>

일부 주민들의 탁수 민원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20일 빛가람동 아파트 4개소에서 온수사용 시 필터가 황토색으

로 변한다는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밀 수질 검사 결과, 납, 비소, 구리(Cu), 수소이온농도(pH) 등 총 14개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초중생 위한 영어·중국어 캠프 운영

나주시 8~20일 동신대에서 열어

우수 학생 해외어학연수 기회도

나주시 지역 초·중학생들을 위한 영어·중국어 캠프가 운영된다. 해외 어학연수와 어학캠프는 지역 초·중학생들의 외국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2박 13일 일정으로 동신대에서 ‘2017 겨울방학 외국어 캠프’를 연다.

캠프는 영어 130명(초등 5~6년 100명, 중등 1~2년 30명), 중국어 70명(초등 3~6년 70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들은 함께 숙식하며 평일과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우수 학생들은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받는다.

나주시는 최근 초·중학생들의 외국어

체험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교육지원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외국어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어학연수와 외국어 체험캠프의 경우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일회성 지원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나주시가 동신대를 통해 진행하는 외국어 캠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5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2015년부터 중국어 체험 캠프를 새롭게 마련, 운영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나주=손영철기자 ycsn@

새 얼굴

“치안 역량 강화...안전한 나주 만들 것”

박종열 나주경찰서장



“날로 변화하는 지역 치안 역량을 강화해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신임 나주경찰서장은 최근 열린 취임식에서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나주 지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서장은 화순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경찰에 입문, 전남청 화순경찰서장,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지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